

## 세계 명궁들, 5·18 최후항쟁지서 '민주·인권·평화' 쏜다

국내외 최정상급 궁수들이 5·18민주화 운동 최후항쟁지에서 쏜 화살이 민주·인권·평화의 울림으로 세계에 메아리친다. 4일 2025 광주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 컴파운드·리커브 종목 개인·단체·혼성전 각 금메달 결정전 등 주요 경기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조직위는 개최 도시의 광주를 대표하는 장소이자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인 5·18민주광장에서 펼쳐기로 했다. 1980년 5월 항쟁의 주요 무대였던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은 장소 자체로서도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울림'을 상징한다.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중국 선수단 환영.

사진=광주시청제공

대회 슬로건 '평화의 울림'에는 '평화의 땅' 광주에서 과거에 명중된 화살의 울림이 전세계에 퍼지는 '평화의 메아리'가 된다는 의미가 담겼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신군부 폭압에 맞서 민주·평화·인권을 염원하며 도청으로 모인 대학생·시민들이 민족민주대성회를 연 항쟁의 산실이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선 시민군이 상항실 등을 설치한 항쟁 근거지이며, 5월27일 계엄군 최후진압 당시 마지막까지 분투한 5·18 대표 사적지다.

옛 전남도청은 계엄군 헬기 사격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는 '광주 1번지' 전일빌딩과 항쟁의 주요 무대인 금남로를 마주하고 있다. 민주광장-금남로 일대는 매년 5월17일이면 가장 큰 항쟁 기념 행사인 5·18 전야제가 열린다.

특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통해 조망된 옛 전남도청 일대가 세계인에게 아픔과 희망을 전하며 다시 한 번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은 최근 외벽

###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서 7~12일 결승전 '항쟁 무대' 전일빌딩·금남로 배경, 민주·인권·평화 되새겨

복원 공사를 마친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 분수대, 전일빌딩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다.

광주국제양궁장 내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은 7일부터 대회 마지막날인 12일까지 매일 5·18민주광장에 모여 실력을 겨룬다. 종목별 남·여 개인전은 16강부터, 단체·혼성전은 4강전부터 5·18광장에서 치러진다.

각국 선수들이 활 시위를 당길 사대는 광장 중앙 분수대와 인접한 곳에 설치된다. 과거를 제외한 삼면에서 사대를 둘러싼 관중석은 4개 구역으로 나뉜다.

사대 오른쪽에는 옛 전남도청이, 왼쪽

으로는 전일빌딩이 자리한다. 800여 관중석 어디에서나 항쟁의 산 증인처럼 자리를 지키고 선 5·18사적지를 바라보며 민주·인권·평화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는 이번 대회 결승 경기가 5·18민주광장에서 치러지면서 스포츠·문화·역사가 어우러진 관광도시 광주로서의 면모를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세계양궁연맹은 선수권대회 개최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에서 결승전을 연다. 80년 5월의

기억을 간직한 '5·18민주광장'이 역사성과 상징성에 비춰 광주대회의 결승전 장소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선수권대회는 결승전을 사흘간 치르지만, 이번 대회는 결승전이 6일간 펼쳐진다. 대회 관람 접근성과 기회를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다. 그만큼 광주가 또 한번 널리 알려질 좋은 기회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광주가 세계 평화와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76개국·선수 731명이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는 47개국·445명이 출전한다.

### 광주 양궁 큰잔치 성공, 만반의 준비

76개국 731명 참가... 5일~12일 열전  
자원봉사단 300명·서포터즈 3000명

광주에서 펼쳐지는 세계양궁인들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자원봉사단과 서포터즈가 선수단 입국부터 경기, 출국까지 맹활약한다. 광주세계양궁대회조직위원회는 5일~12일, 22일~28일 열리는 광주 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대회가 성공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선수단 수송부터 경기장 응원, 통역 등을 갖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2명의 자원봉사자가 선발돼 경기 운영, 현장 지원, 안전관리, 외국어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활동한다.

또 인권이 우선되는 대회를 표방하며 중증장애인 선수 식음료 보조도구를 제공하고 화장실을 개선했다.

이슬람권 선수들이 종교의식을 할 수 있도록 기도실을 확보했으며 응급 의료 서비스도 마련했다.

특히 분쟁지역 선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경비 대책도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총 76개국 731명의 선수단이 참여한다.

조직위는 경찰과 협조해 분쟁 대상 국가는 숙소와 동선을 분리했으며 각국 숙소에는 지역 담당 경찰이 24시간 순찰한다.

대회 참가를 위해 방문한 선수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에 컨시어지 데스크를 설치했으며 항공 일정에 맞춰 인천-광주 전용버스가 운행된다.

또 대회기간 연습장-경기장-숙소

를 운행하는 대형버스 300대를 운영하고, 이동 간 안전을 위해 각 차량에는 자원봉사자 등이 탑승한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량버스도 투입해 장애인 선수들을 수송한다.

또 광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광주 관광 DRT'도 운영한다.

선수단을 위해 총 9개 호텔 800여 객실을 확보했으며 균형 잡힌 식사와 쾌적한 숙박 환경을 마련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서포터즈 3000여명도 구성돼 각 경기장에서 활동한다.

서포터즈는 종목 특성에 맞는 응원으로 선수단 사기를 진작하고 관중과 함께 성숙한 응원 문화를 만들어내며 성공적인 대회 분위기를 주도할 예정이다.

세계양궁대회조직위 관계자는 "광주에서 열리는 양궁대회 출전국가 선수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수송부터 통역·식사·이슬람 기도실·분쟁국가 분리 등을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76개국 731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컴파운드(5개), 리커브(5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이승원 기자

### 서향순부터 안산까지... '양궁 메카' 광주 명궁계보는

서향순 LA 제패에 장용호 금빛시위 명맥 이어  
女단체 6연패 이끈 주현정, '신궁'기보배 배출  
리우순 최미선... '사상 첫 3관왕 패자' 안산까지  
인프라 탄탄, 지도역량 시너지... 광주양궁 저력



광주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양궁 리커브 여자 고등·대학·일반부 70m·60m 경기, 국가대표 안산(광주여대·사신원쪽)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도시로서 명실상부 '양궁 메카'로 자리매김한 광주에서는 금빛 명궁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올림픽 양궁 역사상 첫 여자 금메달리스트 서향순을 시작으로 '혼성·여성 단체전, 개인전 금메달' 3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안산까지 기라성 같은 궁수들이 광주에서 나왔다.

광주 양궁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은 수준급 선수 배출과 이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4일 광주양궁협회에 따르면 지역 명궁 계보의 태동은 전남 곡성 출신 서향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향순은 광주여고 재학 중이던 1984년 LA올림픽에 출전, 당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서향순이 금메달을 목에 건 나이는 불과 만 17세. 이 기록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반효진이 만 16세10개월18일 시절에 금메달을 따내기 전까지 깨지지 않았다.

서향순의 금빛 환호를 시작으로 광주에서는 명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광주 양궁의 금빛은 장용호가 2000 시드니올림픽, 2004 아테네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 승전보를 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어졌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 6연패를 이끈 곡성 출신 주현정도 금빛 시위를 이어가며 광주 양궁의 입지를 다졌다.

'신궁' 기보배는 광주가 '금빛 양궁 산실'로 올라서는데 크게 기여했다.

2004 세계주니어선수권 금메달로 화

려하게 데뷔한 기보배는 2010광주여아 시아게임, 2012런던올림픽,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6 리우올림픽 등지에서 연이어 금메달을 수확하면서 광주 양궁의 위상을 드높였다.

뒤이은 광주 양궁의 후계 주자는 최미선이었다. 최미선은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을 필두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둬들이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에 화려하게 데뷔한 안산은 광주 양궁의 '새 시대'를 열었다.

안산은 도쿄올림픽에서 혼성 단체전, 여자 단체전,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대한민국 양궁 역사상 첫 올림픽 3관왕에 올랐다.

최근에는 광주여대 출신 오예진이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광주 양궁의 새로운 기대로 떠오르고 있다.

궁수들의 금빛 활약 배경으로는 지역사회의 탄탄한 인프라와 체계적인 교육이 꼽힌다.

서향순의 LA올림픽 제패 이후 1987년 광주에는 서구 품아동 염주체육관 내에 '서향순 양궁장'이 세워졌다. 지역 양궁계에서는 이를 지역 양궁사의 산실로 본다.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던 60개 사대·길이 150m·폭 120m로 지어진 서향순 양궁장은 수십년 동안 지역 양궁 꿈나무들이 꿈을 키우는 장이 됐다.

이후 노후 문제가 불거지며 지역에서는 양궁 교육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숙원은 사업 결실을 맺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계기로 광주국제양궁장이 개관했다. 광

주국제양궁장의 별칭은 서향순·기보배 양궁장이다.

광주 양궁 발전의 한 축은 걸출한 전·현직 교육자들의 기여도 있다.

박익수 광주양궁협회 부회장, 김성은 광주은행 탠텐양궁단 감독 등이 양궁계를 변함 없이 지키며 양궁 꿈나무 육성에 힘쓰고 있다.

지도자들은 '명궁 계보'를 이으려면 아낌 없는 투지와 전문 지도자 양성, 생활 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부회장은 "안산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유망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이 양궁 메카 광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적기다. 기존의 성공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고 과학적 훈련 방법을 도입해 첨단 훈련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훈련 방법론 개발,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 향상 대응, 지도자 역량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도 역설했다.

또 "양궁이 생활체육으로서 일반인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양궁 대중화도 고민할 시점이다. 대중화는 곧 유망주 발굴, 나아가 양궁 메카의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전해정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에선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GS건설
(주)한화/건설
HDC현대산업개발